

비즈 프리즘 | 아동수당지급제 21일부터 시행…은행들이 움직인다

연 3조원 규모…“아기엄마 마음을 잡아라”

6세 미만 월 10만원…200만명 혜택
수신규모 크고 잠재고객 확보 매력
뽀로로를 이용권·가전 등 경품 제공

21일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제’에 시중 은행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만 6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에게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이 전체 가구 중 상위 10% 이하여야 한다. 올해 수급 대상자는 200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급은 보호자 명의 계좌가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아동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다. 원래 매월 25일이 지급일이지만 첫 지급 달인 9월에 주말과(22일) 추석 연휴(23~26일)가 이어지면서 지급일이 21일로 당겨졌다.

은행들이 아동수당 수급고객에 주목



KB국민은행의 ‘내게와! 뽀로로!’ 이벤트(왼쪽)와 NH농협은행의 ‘아동수당 수령 고객 행운 이벤트’.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하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지급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올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만 7000억원이고, 내년에는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연간 3조 원대의 안정적인 수신 시장이라는 점이 매력이다. 특히 아동 명의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미래 잠재적 고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 계좌 당 매달 10만원씩 들어오는 만큼 수

급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동 명의 계좌는 지급 거래를 시작하면 향후 주거은행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잠재적인 고객 확보를 위해 유치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중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고객유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아동수당 수급 고객을 대상으로 ‘내게와! 뽀로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



사진제공 | KB국민은행·NH농협은행

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을 2회 이상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뽀로로 물 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자사 계좌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면 추첨을 통해 건조기, 무선청소기, 공기정정기 등의 가전 경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IBK기업은행은 첫 아동수당을 IBK기업은행 계좌로 받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 바우처를 지급하고 카시트, 유모차 할인 혜택을 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10~14일

코스피지수	2318.25	▲	+36.67
코스닥지수	834.91	▲	+16.05
日 닛케이 지수	2만3094.67	▲	+787.61
中 상하이 종합	2681.64	▼	-20.66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60	▲	+0.041
환율 (원·달러)	1119.50	▼	-4.5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3379.63	▲	+2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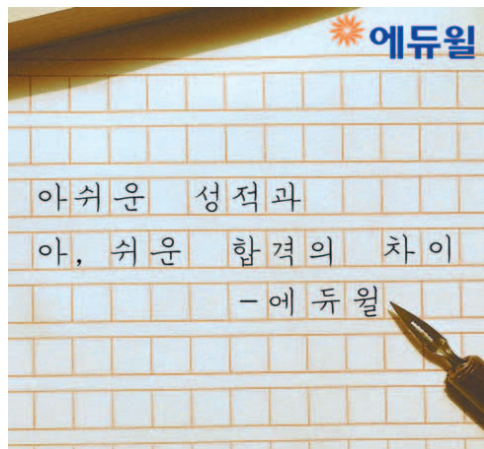
지수는 14일 증가, 등락은 주간 집계.

WCG 내년 중국 시안서 부활

‘게임 올림픽’ WCG가 내년 중국서 부활한다. WCG는 ‘WCG 2019’ 대회를 중국 시안에서 2019년 7월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WCG는 2000년 시범대회 이후 2013년 중국 쿤산 대회까지 14년 동안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로 군림했다. 이후 대회가 열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지만 2017년 스마일게이트가 WCG 브랜드를 인수하며 부활을 예고했다. 종목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곧 공개할 예정이다. 권혁빈 WCG 조직위원장은 “WCG는 글로벌 e스포츠 페스티벌로 거듭나기 위해 토너먼트 외에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LGU+, 블록체인 기반 해외결제 추진

LG유플러스는 일본 소프트뱅크, 대만 파이스톤과 함께 미국 TBCA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결제 시스템 ‘C CPS’(Cross Carrier Payment system)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내로 각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통신요금납부 방식(DCB)의 온·오프라인 결제를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고객은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다음달 통신요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김영근 기자



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팔 걸었다

도매대가 내리고 전파사용료 면제

정부가 최근 시장침체 위기에 직면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업체가 망을 빌리는 대가

로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알뜰폰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원/MB에서 3.65원/MB로,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이 지난해보다 215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파사용료 면제 만료도 내년 12월로 연장키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유통 지원을 위해 우체국 입점 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 망을 1500개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사가 경쟁적으로 가격적인 저가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알뜰폰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지난해 말 기준 75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시장침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외국인 관광객 “한강유람선·배달음식 경험하고 싶어요”

(30%)

(20%)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강에서 경험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로 유람선과 배달음식 체험이 꼽혔다. 서울관광재단(대표

이사: 이재성)은 서울관광 공식 SNS ‘비킷 서울’ 페이스북과 웨이보를 통해 한강에서 경험하고 싶은 한국 문화에 대한 선

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한강 유람선’을 체험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어 배달음식(20%), 수상 레포츠(15%), 야외공연(14%), 캠핑(13%), 수영장(5%) 순으로 체험하고 싶은 한국문화를 꼽았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관

광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관광 정보를 다국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로 제공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공무원 응시생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공무원 시험 도전…직렬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넘쳐난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안정적 직업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공무원 채용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초시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다. 복잡한 공무원 직렬과 선택과목 등 때문에 처음 공무원 시험에 도전 중이라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상적인 공무원 시험에는 국가직 공무원·지방직 공무원·서울시 공무원이 있어서 공시생들은 일년에 총 3번의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서울시 공채 시험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면서 1년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가 2번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채용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후



정도가 되는데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필기에 합격해놓고 면접에서 허망하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면접 준비 또한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초시생들이 가장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 직렬이다. 담당하는 직무 속성에 따라 크게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이 외 필수 자격증이 필요한 사회복지직·사서직·전산직 공무원 등도 있다.

자격증이나 가산점에 따라 자신에게 잘 맞는 직렬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 기업에서도 직무가 있듯 공무원 직렬이 직무나 필드와 연결되므로 직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면접에 합격해야 최종 합격인 것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약 130~150%

■ 스도쿠문제

		3	4		6	7		
				9	8			
9		8				2		5
3	7			1			5	8
			8		3			
6	8			9			7	3
4		1				3		6
			3		1			
		7	2		9	5		

			9		8		2	7
2				7		6		
3					9			1
	1		6		7		2	
5		8					1	6
	9		1		8		3	
7				2				8
			4		1			7
	4	1		7		6		

■ 스도쿠정답

4	1	9	6	9	2	7	8	8
7	6	8	1	4	8	9	9	2
9	2	8	9	8	7	1	6	4
8	7	1	2	6	5	4	8	9
2	4	9	8	7	8	6	1	9
8	9	6	4	1	9	2	7	8
9	9	2	7	8	1	8	4	6
1	8	4	8	2	6	9	9	7
6	8	7	9	5	4	8	2	1

2	9	9	8	7	8	1	4	6
7	6	8	1	9	4	9	2	8
8	1	4	6	2	9	9	8	7
9	8	7	8	4	1	2	6	9
9	4	1	2	8	6	8	7	9
6	2	8	7	9	9	8	1	4
1	9	9	4	6	2	7	8	8
8	8	6	9	1	7	4	9	2
4	7	2	9	8	8	6	9	1